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배움터'

### 군산,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시민들에 큰 호응 얻어

군산시가 실시하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접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배움터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집 근처 공공장소에서 수준별 디지털 교육 수강이 가능한 '2022년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배움터' 10개소를 선정, 오는 2022년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시민 누구나 집 근처 '디지털 배움터'에서 수준별 디지털 역량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 디지털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배움터로 금강노오복지관 대야면 주민센터,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희망투어파트 회의실 등의 장소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11월 현재 연인원 3,200명이 수강했다.

디지털역량 소외계층에게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뱅킹,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상생활 밀착형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큰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

실제로 수강한 70대 어르신은 "이번 교육으로 택시호출앱을 사용해 이동할 수 있고 간단한 커피 선물 등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어 만족감이 증가했다"며 "배움터에서 직접 키오스크를 이

용해 햄버거 주문도 할 수 있어 일상생활이 한층 편해졌다"고 말했다.

또 고급과정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만드는 홍보영상, 블로그 만들기, ITQ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준비나 영업장 홍보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협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중급, 고급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전여 2회지를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매각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 군산시,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전여 2회지를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매각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총 28회지로 조성된 임피지구는 지난 7월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평균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26회지가 매각됐으며 현재 전여 2회지만 남아 이번엔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매각을 진행한다.

매각 대상지인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원주택,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며 매각가격은 6천9백여만원(임피면 숲산리 761-8, 520㎡) 및 6천6백만원(임피면 숲산리 761-9, 500㎡)이다.

매각 방법은 매수신청에 따른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인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

으로 매수신청서를 제출·접수한 사람을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 및 접수결과는 22일 오전 9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시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세외수입계좌에 매각대금의 10%를 22일 오후 6시까지 납부해야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미납 시에는 계약안정이 무효 처리되며 차순위 접수자가 계약대상자로 자동 승계된다.

한편 임피지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063-454-3493)로 문의하면 된다. 임피지구는 만경강 범람산 등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자산관리공사,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최나송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 기업 재도약 지원 확대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등 가계재기

지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일괄공매 등 효율적인 채납장터업무 활성화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등 공공자산 가치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상호 협력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상생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민들의 가계와 군산기업들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은 물론 가계·기업·공공부문을 포괄해 지원하는 국가경제안정관으로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긴장의 끈 놓지말고 내년도 예산확보 전력”

### 정현을 익산시장, 내년 예산심의 철저한 준비·대응 주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처해 필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길 주문했다.

정 시장은 "예산심의를 철저한 준비와 대응하고 시의회의와 면밀히 협조·소통해 사업 예산 편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국가예산 확보 총액증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개별사업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제가 필요하다고"며 시민 체감 정책에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일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 돌파감염자"라며 고령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3차 부스터 샷과 청소년의 기본 접종을 촉구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정 시장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3차 접종을 쉽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 추가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외 덧붙여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을 포함한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차 부스터 접종 집중 시행 기간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이특훈 기자

## 청년성장한뎌 경연대회 '청년참여·문화저변 확대'

익산시가 청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청년 성장 기회 확대와 청년 문화 저변 확장에 나섰다.

시는 청년들의 사회 공헌, 자기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의 동력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한뎌 지원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그간 성과를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경연 대회를 2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 대회에는 총 9개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사회 공헌, 음악,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활동한 내용을 선보였다.

경연 방식은 정량평가와 그동안 진



행한 성과를 PPT로 제작·발표했다.

경연대회 결과 1등은 '엄마영아놀이터' 팀으로 청년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영어교육을 통해 청년 육아 해법을 보여주었다. 2등은 P.D.R.T.(아동발달 재활치료 스테디)으로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소아 물리치료를 연구를 통해 관련 논문 발표까지 이르는 청년 동아

리의 성장력을 과시했다. 3등에는 청년과 청년정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찬 프로젝트를 실시해 청년들의 긍정과 열정에너지 문화를 확산시킨 '익산청년응원단'이 차지했다.

이 밖에도 직접 작사·작곡하며 노래하는 '그래도 오거리' 팀 공예, 비느질, 미싱 등으로 생활 작품 활동과 기부에 참여하는 '숨쉬로운 한뎌' 등 총 9팀이 열린 경연을 보여줬다.

시는 익산 청년 성장한뎌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축이 된 청년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이는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특훈 기자

### 지역 소식 통

#### 전북은행, 군산시에 방한키트 100상자 기탁

군산시는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방한키트 100상자(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향토은행으로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성금·품 지원 등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어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임재원 부행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귀한 성품을 전달해 주신 전북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임신 성공률 30%이상

익산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한방 난임 부부지원사업 결과 임신 성공률이 31.2%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2018-2020) 한방난임치료자금을 받은 90명 중 28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그에 따른 사업참여자의 만족도가 94%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도내 최초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난임의 남성 요인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난임 부부로 대상을 확대해 30부부 총 60명을 지원했다.

한방난임치료는 개인의 체질에 맞춘 한방진료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체내 환경을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해 시험관 아기 시술 전이나 반복적으로 착상이 실패되는 경우 난자나 정자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유치가 안되고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원인의 난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이특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